

'농지이양 은퇴직불제' 신청하세요

한국농어촌공사 진주·산청지사, 전통시장에서 홍보 활동 벌여

정재길 기자

승인 2024.09.28 22:25



'농지이양 은퇴직불제' 집중 홍보 활동 현장 [사진=한국농어촌공사 진주·산청지사]

[한국영농신문 정재길 기자]

한국농어촌공사 진주·산청지사(지사장 이은수)는 고령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'농지이양 은퇴직불제'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.

202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'농지이양 은퇴직불제'는 고령농업인(65~84세)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,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.

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,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.

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다.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,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이 지급된다. '농지이양 은퇴직불제'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,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.

이은수 진주·산청 지사장은 "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고,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."고 밝혔다.

정재길 기자 ynkkiller@hanmail.net

<저작권자 © 한국영농신문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인쇄하기